

## 한국다우코닝, 11월4일 창립 25주년 맞아

세계 최초로 실리콘(Silicone)을 만들어낸 다우코닝(Dow Corning)이 1983년 한국에 최초로 실리콘을 소개하고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한지 25주년을 맞았다.

다우코닝은 전자제품, 반도체, 섬유, 건축, 화학, 자동차, 화장품 등 제조업 전반에서 실리콘과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다우코닝은 1983년 국내 최초의 실리콘 공장을 가동한 이후 각종 실링재와 접착제, 고무, 이형제, 소포제, 섬유유제 및 코팅제 등의 제품을 생산해 왔으며, 1997년부터는 실란트와 고무제품의 아시아 지역 핵심 공급 기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다우코닝 조달호 사장은 “25년 동안 고객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창조를 추구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국기업의 글로벌화와 기술의 첨단화를 목표로 고객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다우코닝의 25주년 창립 기념식은 11월4일 COEX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진행되며 임직원 일동은 물론 Dow Corning 장마크 길슨 아시아 대표 및 국내 고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8/11/03>